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원장 이연구)은 지난 3월 22일 기계설비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원 1주년 기념식 및 연구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개원 1주년 기념식 및 연구성과 발표회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원장 이연구)은 지난 3월 22일 기계설비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연구원 이상일 이사장(협회 회장)을 비롯해 협회 박인구·박종학 고문, 강석대 명예회장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김기석 이사장, 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 강병하 회장,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상우 원장 등 내외귀빈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1주년 기념식 및 연구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3월 17일 개원하여 △연구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대한설비공학회와 연구교류협정 체결 △KRIMFI REVIEW 발간 △이사회 개최 △연구보고서 발간을 비롯해 국토교통 R&D 사업의 공동연구기관 선정 및 9건의 수탁과제 완성 등 다양한 사업 추진과 성공적인 연구활동을 펼쳐 왔다.

이에 대한 간략한 연혁보고를 시작으로, 1부 행사에서는 환영사·기념사·축사·격려사를 비롯해 유공자 표창을 했으며, 2부 행사에서는 연구원 대표과제에 대한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이상일 이사장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자립형 전문연구원으로 성장 기대”

이상일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해 3월 개원식을 가진지 엇그제 같은데 1주년을 맞이하여 감개무량하다”면서 “우리 연구원은 짧은 기간이지만 국토교통부 R&D 사업 공동연구기관 선정을 비롯해 9건의 수탁과제 완성 등 성공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전문연구기관으로 인정받는 매우 값진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상일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 연구원은 짧은 기간이지만 국토교통부 R&D 사업 공동연구기관 선정을 비롯해 9건의 수탁과제 완성 등 성공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전문연구기관으로 인정받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연구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해 3월 개원식 이후 우리 연구원은 연구활동에 최선을 다했으며, 학술논문 발표, 세미나 발표, 워크숍 및 토론회 참석을 비롯해 언론기고와 정책자문도 활발해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상일 이사장은 또한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신 이연구 원장님과 연구원 여러분을 비롯하여 연구력 향상에 크게 기여해 주신 한화택 교수님과 심의 위원님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기계설비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여 전기설비처럼 독립된 업종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코자 하오니, 앞으로도 심도있는 연구와 새로운 정책대안 개발을 부탁드립니다.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자립형 전문연구원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연구 원장 “연구원 설립 취지에 맞는 목표 달성 위해 최선”

이연구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상일 이사장님, 조합 김기석 이사장님, 협회 백종윤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협회·조합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

다”고 언급하며 “지난해 3월 개원식을 갖고 출범한 우리 연구원은 지난 1년간 기계설비산업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활동에 최선을 다했다”면서 “기본과제·수탁과제·위탁과제 등 총 9건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각종 학술논문 발표, 세미나 발표, 워크숍 및 토론회 참석을 비롯해 언론기고와 정책자문도 활발히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연구 원장은 또한 “특히 우리 연구원은 국가 R&D과제인 국토교통부 연구단과제 2건에 공동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연구원의 공신력 확보와 함께 안정적 운영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이는 연구원 모두의 노력과 협회 및 조합의 전폭적인 협조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앞으로도 연구원 설립 취지에 맞는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연구 원장은 “연구원은 기계설비산업이 국가에너지소비절약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사업> 참여를 적극 추진하여 올 하반기에 인증기관 신청을 완료할 계획이며, 국가 R&D 사업의 주관 연구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권위를 인정받는 전문산업연구원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연구원 성장에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계설비산업협회 강병하 회장은 축사를 통해 “연구원은 짧은 연구기간이었지만 기대 이상으로 훌륭한 연구성과를 도출해 냈고, 다양한 연



강병하 회장

구활동을 통하여 기계설비산업의 인식과 위상을 제고했다”면서 “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도 실질적인 연구교류를 진행하는 등 유관 연구원간 협력체제 구축에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원장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상우 원장도 축사를 통해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비록 업역은 서로 조금 다르지만 같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상호 보완하는 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석 이사장

조합 김기석 이사장은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침체와 도약의 기로에 서 있는데, 이 같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 연구원의 정책적·제도적 개선책 연구와 새로운 산업경쟁력 제고 등은 업계에 커다란 희망을 주고 있다”면서 “우리 조합은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아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추진해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합 수익성을 향상시켜 조합원의 편익확대 및 이익환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연구원의 예산 지원도 아끼지 않도록 하

겠다”고 밝혔다.

유공자 포상

한편 이날 연구원은 창립과정을 비롯하여 개원 1주년에 이르기까지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기여한 △국민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부 한화택 교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광주호남지점 신동철 지점장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류형규 연구위원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상일 이사장은 연구원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사진 왼쪽부터 국민대 한화택 교수, 이상일 이사장, 연구원 류형규 연구위원, 조합 신동철 지점장)

연구성과 발표회

연구원은 2부 행사인 연구성과 발표회를 통해 지난해 수행한 9개 연구과제와 2건의 국가 R&D 과제 중 △기계설비배관 및 장비단열 기준 개발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효과 및 제도개선 방안 △기계설비건설업 동향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등 3개 연구과제를 발표했다.

한화택 연구심의위원장은 주제발표 후 연구성과 평가를 통해 “기계설비분야 관련업계 및 학계에서

연구원 대표과제

구분	주제	발표자	직함
설비기술연구실 대표과제	기계설비배관 및 장비단열 기준 개발	류형규	연구위원
산업정책연구실 대표과제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효과 및 제도개선 방안	오치돈	선임연구원
연구기획관리실 대표과제	기계설비건설업 동향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이영준	책임연구원



2부 행사인 연구성과 발표회에서 이연구 원장이 연구성과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는 우리 연구원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고 언급하며, “1차년도 연구에서는 첫 해이다 보니 연구수

행 과정에서 일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연구목표를 충실히 달성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화택
연구심의위원장

한화택 연구심의위원장은 또한 “저는 우리 연구원이 업계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고부가가치의 미래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산업연구원으로 우뚝 성장할 것을 확신하고 있다”면서 “연구원이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주년 기념 축하 떡케익 커팅 (사진 왼쪽부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상우 원장, 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 강병하 회장, 조함 김기석 이사장, 연구원이연구 원장, 협회 박인규·박종학 고문, 연구원 이상일 이사장, 협회 강석대 명예회장)